

새 구심점 하승운 “흔들림 없이 ‘광주의 길’ 간다”

광주FC, 이정효 감독 이적 임박·선수 추가 이탈 등 어수선
올해 코리아컵 등 주축 활약…“똥똥 뭉쳐 내년엔 더 성장할 것”

“원팀으로 시작해 원팀으로 끝났다.”
지난 6일 코리아컵 결승이 끝난 뒤 광주FC의 하승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원팀’을 강조하며 긴 시즌을 마무리하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하승운의 이야기대로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과 박태준의 시즌 중반 입대 등 길고 험난한 시즌이었지만 광주는 ‘원팀’으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K리그1 잔류, 코리아컵 준우승이라는 위대한 성과를 냈다.
팀워크로 만든 2025시즌, 광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른다.
구단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이정효 감독의 이적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선수들의 추가 이탈도 있다. 코리아컵 결승을 위해 입대를 미뤘던 이강현과 변준수가 전력에서 빠지고 코리아컵 무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의 이적도 준비되고 있다.
‘원팀’으로 달려왔던 하승운은 새로운 시즌, 새로 구성될 광주의 구심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 출신인 하승운은 2019년 포항에서 프로 데뷔를 해 전남과 안양에 입대 돼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2022년 고향 유니폼을 입고 이정효 감독과의 동행을 시작했다.

광주에서의 첫해 30경기에 나와 2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2 우승에 기여한 그는 2023년에는 K리그1에서 18경기에 나와 2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4경기에 출장이 그쳤고 올 시즌에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두 달가량 공백도 있었다.
아쉬움의 시간은 있었지만 하승운은 공격 본능을 발휘하면서 광주의 막판 질주에 힘을 보탰다. 시즌 중반에는 풀백으로 물러나서 이정효 감독의 전력 옵션을 넓히는 역할도 했다.
간절하게 바라고, 준비했던 코리아컵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달렸던 만큼 하승운은 후련하게 시즌을 끝낼 수 있었다.
하승운은 “후회 없이 했다.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클러치 본능’의 하승운은 시즌 마지막 무대를 마음껏 즐겼다.
코리아컵 결승 시작과 함께 전북 진영에서 상대 수비수를 압박해 공을 뺏아낸 뒤 프리드윈슨의 패스를 받아 시원한 슈팅을 시도했다. 차는 순간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예리한 슈팅이었지만 아쉽게

공은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경기 전에 감독님께 ‘자신 있으니까 못하면 바로 교체 카드 준비하시라’고 말했다”라면서 웃은 하승운은 “체질이 큰 경기에 강하고 즐기는 편이다. 골이 들어갈 줄 알았다. 아쉬운 건 끝도 없다. 좋은 걸 과했어야 했는데 죄송스럽다”라고 시즌 마지막 경기를 돌아봤다.
후회 없이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부상으로 오랜 시간 뛰지 못하기도 하는 등 시즌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하승운에게는 성장의 시즌이 됐다.
하승운은 “올 시즌 좋은 경험을 했다. 늘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도 배운 게 많다. 그걸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해서 멘탈적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된 것 같다”며 “부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시즌이 짧았다.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 아쉽지만 후회는 없다. 속 시원하게 했다”고 말했다.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던 이들과의 작별이 기다리지만 하승운은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이름으로 또 다른 질주를 펼칠 생각이다.
하승운은 “준우승이 아쉽지만 더 성장해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 팬분들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홈경기 때 많이 오시면 좋겠다”며 “남은 이틀 끼리 잘 뭉쳐서 잘 해보겠다. 내년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아컵 결승전을 통해 2025시즌을 마무리한 광주FC의 하승운이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시즌 성장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황금듀오’ 임종훈-신유빈, 만리장성 격파

탁구 월드컵 시리즈 왕중왕전 혼복
왕추진-쑨잉사조 3-0 꺾고 ‘금’
6전 전패 열세 뒤집고 값진 승리

작년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을 합작한 ‘황금 콤비’ 신유빈(대한항공)과 임종훈(한국거래소)이 올해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시리즈를 총결산하는 왕중왕전에서 만리장성을 허물고 정상에 오르는 패거리를 이뤘다.
신유빈은 13일 홍콩에서 열린 WTT 파이널스 홍콩 2025 혼합복식 결승에서 임종훈과 호흡을 맞춰 중국의 왕추진-쑨잉사 조를 3-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WTT 시리즈 그랜드 스매시와 챔피언스, 칸텐더 성적을 기준으로 랭킹 포인트가 높은 선수들만 초청해 우승자를 가리는 왕중왕전이다.
남녀 단식에는 세계 정상급의 16명만 참가하고, 혼합복식에선 8개 조만 초청받았다.
혼합복식 세계랭킹 2위인 임종훈-신유빈 조는 조별리그에서 3경기를 모두 3-0 승리로 장식하고 조 1위로 4강에 올라 이날 중국의 린둥-콰이만 조와 만났다.
린둥-콰이만 조는 올해 WTT 시리즈 최상위급인 그랜드스매시 3관왕(싱가포르·미국·유럽 스매시)을 달성하며 혼복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선 최강 복식조였다.
특히 올해 WTT 시리즈 3관왕(첸나이·류블라나·자그레브)에 오른 임종훈-신유빈 조는 미국·유럽 스매시 결승에선 린둥-콰이만 조에 무릎을 꿇어 두 번 모두 준우승했다.



지난 13일 홍콩에서 열린 WTT 파이널스 홍콩 2025 혼합복식 결승에서 임종훈과 호흡을 맞춘 신유빈(오른쪽)이 공격을 하고 있다. [WTT 인스타그램 캡처]

임종훈-신유빈 조는 4강에서 다시 만난 린둥-콰이만 조를 3-1로 제압, 시원하게 설욕하고 결승행 티켓을 따냈다. 결승에서 남녀 단식 세계랭킹 1위가 호흡을 맞춘 중국의 왕추진-쑨잉사 조를 만난 임종훈-신유빈 조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왕추진-쑨잉사 조는 임종훈-신유빈 조에는 넘어서기 어려운 ‘천적’이었다.
작년 파리 올림픽 준결승에서 임종훈-신유빈은 왕추진-쑨잉사에 2-4로 졌다. 올해 세계선수권까지 임종훈-신유빈 조는 왕추진-쑨잉사 조에 6전 전패의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신유빈이 지난 8일 중국 청두에서 끝난 혼성단체 월드컵 대조별리그 2경기만 지르

고 무릎 인대를 다쳐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다.
하지만 신유빈은 혼합복식에서 투혼을 발휘했고, 마침내 왕추진-쑨잉사 조를 넘어서며 한국의 파이널스 출전 사상 첫 혼복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달 30일 결혼한 임종훈은 결혼 직전에 출전한 WTT 스타 칸텐더 무스카트에서 오준성(한국거래소)과 남자 복식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최고 무대인 파이널스에선 신유빈과 혼합복식 금메달을 합작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신혼여행까지 미뤘던 임종훈으로선 최고의 결혼 선물을 얻은 셈이다.
신유빈과 임종훈은 올해 WTT 마지막 대회에서 혼복 금메달이라는 최고의 성과로 2025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중원 수비 강화

포천시민구단 수비수 강신명 영입…올 K리그3 ‘베스트 11’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2025 K리그3 ‘베스트 11’에 빛나는 포천시민구단 수비수 강신명(28)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영등포공고-전주대 출신의 강신명은 183cm·82kg의 건장한 체격을 바탕으로 센터백과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 자원이다.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그는 많은 활동량과 뛰어난 대인수비 능력으로 올 시즌 전남의 약점으로 꼽혔던 수비진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6위로 시즌을 마감한 전남은 올 시즌 39경기에서 63골을 넣으면서 ‘우승팀’ 인천유나이티드(66점)와 4위 서울이랜드(64점)에 이어 득점 3위에 올랐지만, 52골을 내주면서 최소실점 10위에 그쳤다.
2018년 U23 대표팀 출신인 강신명은 2020년 K

리그2 수원FC를 통해 프로 무대에 진출했지만 3경기 출전에 그쳤고, 2021년 김포FC(K3)로 이적했다. 이후 천안시축구단(2022), 화성FC(2023), 포천시민축구단(2023) 등 K3 무대에서 활약한 그는 고관절 부상 여파로 1년의 공백기를 가진 뒤 올 시즌 복귀해 포천시민의 센터백으로 활약했다.
안정된 수비로 팀의 3위에 기여한 그는 지난 10일 치러진 K리그3 시상식에서 유찬·여재율·이슬찬(이상 김해FC)과 수비수 부문 베스트11에 선정됐다.
강신명은 “역사가 오래된 팀에 오게 돼 기쁘고, 6년 만에 프로무대에 복귀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팀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가 K리그3 베스트 11 수상자인 수비수 강신명을 포천시민구단에서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배준호 ‘코리안 더비’서 존재감

EFL 챔피언십 21R 스토크시티
엄지성 스완지시티 2-1 제압
배, 선제골에 도움까지 맹활약

축구 국가대표 배준호(스토크시티)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이뤄진 ‘코리안 더비’에서 선제골을 도우며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스토크시티는 13일(현지시간) 영국 스토크온트렌트의 벳365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완지시티와의 2025-2026 챔피언십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이날 경기는 배준호와 스완지시티 엄지성의 ‘코리안 더비’로 한국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배준호와 엄지성은 이날 경기에 각각 공격형 미드필더와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에 초반부터 그라운드에서 맞붙었다.
웃은 쪽은 배준호였다.
배준호는 이날 풀타임을 소화하며 선제골 도움도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찰턴 애슬레틱과의 17라운드에서 3-0 승리에 썩기를 막는 골을 어시스트한 이후 나온 시즌 3호 도움이다.
전반 42분 배준호는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던 벤 피어슨을 향해 패스를 살짝 띄워 보냈고, 피어슨이 그대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배준호는 5분 뒤엔 세코 다초키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며 추가 골을 노렸으나 골대 위로 넘어가 아쉬움을 삼켰다.
스토크시티는 후반 15분 소비 토머스의 골로 도망갔고, 스완지시티에서는 잔 비포트니크가 후반 33분 만회 골을 기록했으나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엄지성은 후반 26분 멜케르 비델과 교체되기 전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엄지성은 전반 23분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한 차례 슈팅을 시도했으나 오른쪽으로 빗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연합뉴스